# 전주역 앞 6지구, 40년 만에 '첫 변신'

## 사람 · 생태 · 문화의 가치 담은 첫 마중길 조성사업 FIFA U-20월드컵 이전 주요 공정 완료 계획

지난해 서울역 다음으로 이용객이 가장 많이 증가한 전주역 주변 환경이 확 바뀌고 있다.

사람·생태·문화의 가치를 담은 전주역 앞 첫 마중길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최근 낡고 협소한 전주역사의 전면 개선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면서 전주 역세권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전주시가 2000만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관광객들이 첫 발을 내딛는 전주역에서 명주골사거리까지 백제대로 약 1㎞ 구간을 문화광장과 명품거로숲 길 등으로 조성하는 첫 마중길 조성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전주의 얼굴인 전주역 주변 이미지 개선을 통해 도시의 첫인상을 바꾸는 이 사업은 자동차만 가득했던 도로를 사람과 문화로 가득한 거리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오는 20일 전주에서 개막하는 FIFA U-20월드컵 이전에 주요 공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첫 마중길을 자동차 대신 사람이 머무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차선과 인도폭을 줄이는 대신, 도로 중앙에 사람이 머물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평균 6차선(15~20m) 폭을 가진 보행광장을 만들었다.

또 시민희망나무 헌수를 통해 다양한 수목을 식재해 명품 가로숲도 조성했다. 이는 거리와 상가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 대신, 문을 닫은 유흥업소로 폐허화되고 와 대로 위를 빠르게 지나쳐가는 자동차와 매연 등으로 황량했던 전주의 첫 이미지를 1000만 관광도시 전주의 품격에 맞게 바꾸기 위함이다.

**"우리도 의견을 말하고 싶다"** 9일 전주시 고사동 객사 앞에서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위한 대선 모의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피켓을 들고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시는 또 첫 마중길 광장과 거리를 문화특별시 전주의 품격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문화장터와 벼룩시장, 버스킹공연, 예술경연대회 등 문화와 예술로 가득 채워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만 빠르게 지나쳐 갔던 전주역 주변이 사람이 몰리고 문화가 넘쳐흐르는 거리와 광장으로 자리매김해 역세권 경제도 되살리고, 전주시민들을 먹여 살릴 관광경제도 몸집을 불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역 역시 지어진 지 36년이 경과하면서 낡고 비좁은 역사가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호남의 관문이라는 위상에 걸맞은 모습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올 연말까지 사전타당성용역을 진행하고, 전주역사에 대한 선상역사 전면개선, 기존 역사 증·개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설규모와 사업비 분담 등 종합적인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첫 마중길은 전주의 삭막한 첫 인상을 밝고 매력 있는 얼굴로 바꾸고, 도시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것은 자동차보다는 사람의 도시, 콘크리트보다는 녹색생태도시, 직선보다는 곡선의 도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이와 더불어 천만 관광객이 오는 전주의 관문인 전주역사도 문화재급으로 바꿔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사람들을 머물게 해서 침체된 역세권 경제를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김민근 기자

# 글로벌 문화도시 전주에서 만나는 영국

## 오늘부터 14일까지 한옥마을 일원서 '전주시 세계문화주간-영국주간' 진행

전주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신사의 나라 영국의 문화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글로벌 문화도시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시는 오늘부터 14일까지 5일간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2017 전주세계문화주간-영국주간' 행사를 진행한다. 전주시와 주한 영국문화원이 공동주관하고, 전주시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2017~18년 한·영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리지널 해외문화를 접할 기회가 부족한 시민들에게 다양한 영국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행사는 첫날 한옥마을 교통아트에서 진행되는 오프닝을 시작으로 '문화강국 영국, 문화도시 전주에서 만나다'라는 슬로건으로 5일간의 문화대장정의 막을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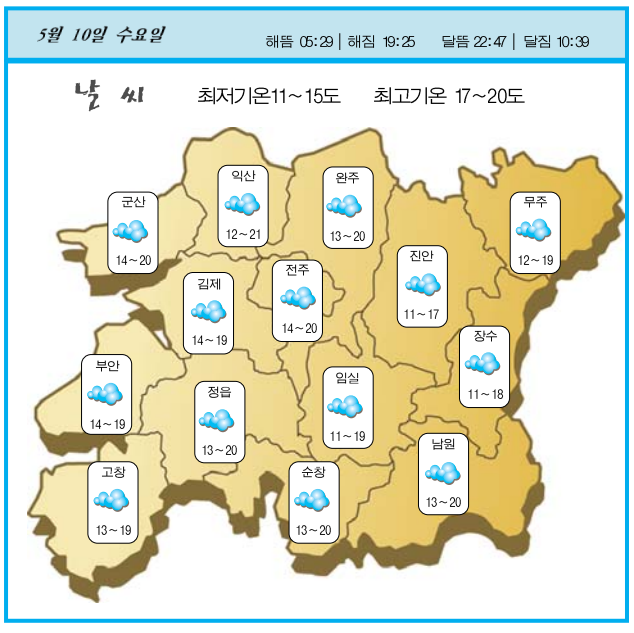
특히, 이번 영국문화주간 행사에서는 페이퍼 아티스트인 리치 맥코어(Rich McCor)가 초청돼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소에 본인의 종이작품을 접목한 △역기드는 자유의 여신상 △런던아이 자전거 등 랜드마크를 변화시키는 작품들이 전시된다.

둘째 날인 오는 11일에는 두 개의 행사가 순차적으로 개최돼 이번 영국주간 행사의 피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한옥마을 문화광장에서는 아크로바틱과 연극적 요소를 결합한 현대 서커스 작품을 공연하는 아크로주(Acrojou)의 '너 휠 하우스: 바퀴 안의 연인의 삶과 여정' 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한옥마을 여명카메라박물관에서는 영국의 유명작가 제인 오스틴의 서거200주년을 기념한 북&필름 콘서트 '영화로 만나는 제인 오스틴'이 열린다. 이날 콘서트에는 영화평론가 윤성은이 초청돼 제인 오스틴의 작품세계에 대해 강연하고, 강연 후에는 영화 '데이디 수잔'을 함께 관람하고 관객들과 대화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2017 전주시 세계문화주간-영국주간'은 우리 시민들이 영국의 격조 높은 문화를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 개최된다. 영국의 정통 문화와 예술을 흠뻑 느껴 유럽문화의 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계획된 만큼 우리 시민들이 많껏 즐겼으면 좋을 것"이라며 "지난해 성황리에 개최되었던 프랑스주간의 성공 이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 전주시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

전주시가 시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발간했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시민에게 공급되고 있는 수돗물에 대한 정확한 수질정보를 정확히 알려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고,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발간·배부했다고 8일 밝혔다.

맑은물사업본부는 해마다 최근 1년 동안의 수돗물의 원수 및 정수의 수질정보와 공급단계별 수질검사 결과, 수돗물에 대한 궁금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리플렛 형태로 책자를 발간해 각 세대에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총 4쪽 리플렛 형태의 2017년도 전주시 수돗물품질보고서에는 전주시 수도정책의 추진방향과 함께 과학적인 수질관리 및 철저한 수질검사 실시 내역 등이 포함됐다. 또,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돗물을 상시 공급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포괄적으로 수록돼있다.

뿐만 아니라, 수돗물에 대한 궁금증 중 소독약품 냄새에 대한 건강상 염려에 대해서는 수돗물이 각 가정까지 공급되는 과정에서 각종 미생물의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과정으로, 이러한 소독냄새는 수돗물이 위생적으로 안전하다는 의미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맑은물사업본부는 시민들에게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상수도 실시간 수질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전주시 홈페이지 맑은물사업본부 배너를 클릭할 경우, 주요 3개 배수지(효자, 천마, 인후)의 수소이온농도와 탁도, 잔류염소의 수질정보를 실시간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또, 시민들이 손쉽게 수돗물 안심확인제 무료수질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김태수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수돗물이 과학적으로 인정받은 안전한 물임을 시민에게 계속 알림과 동시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시민의 생명수인 수돗물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 투표하고 귀가하다 70대 여성 자동차에 깔려 사망

투표를 마치고 귀가하던 70대 여성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9일 오후 2시13분께 정읍시 수성동 한 도로를 건너던 정모(74·여)씨가 승용차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마을주민들과 대선 투표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변을 당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민근기자